

退溪의 文獻觀과 文獻學的 學風의 展開**

—鶴峯系派를 中心으로—

柳 鐸 一*

• 目 次 •

I. 서 언	풍의 전개
II. 退溪의 文獻觀과 저술유형	V. 全州柳氏一門의 考覈實證의 저술
III. 退溪의 文獻學的 중심과제	과 특징
IV. 鶴峯系 退溪學派의 문헌학적 학	VI. 결 언

I. 서 언

既有知識의 철저한 재인식과 새로운 지식의 체계적 획득이 학문이라 할 때, 학문하는 학자의 방법과 태도는 각각 개별성을 갖게 됨과 동시에 때로는 한 유파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각도에서 16세기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退溪 李滉의 문헌을 대하는 학문적 태도와 방법은 어떠하였으며 뒷날 퇴계학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퇴계학파는 嶺南派와 畿湖派로 나누며 영남파에서는 鶴峯系(左派)와 西厓系(右派)로 나누어 진다. 그런데 이 鶴峯系에 있어서 유독 文獻註釋學的 학풍이 형성 계승되었고 그에 따른 많은 저술이 편찬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文獻學的 시각에서 이같은 학풍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전개의 흐

* 부산대 국어교육과 교수

**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퇴계학연구』 제2호(1988) 게재논문

름을 살펴 보고자 한다.

따라서 퇴계는 첫째 어떠한 태도로 문헌을 대하였으며, 둘째 그 중심 과제는 무엇이며, 셋째 그러한 학문적 태도와 방법은 鶴峯系 학맥에 어떻게 확산 발전되었으며, 넷째 그로 인하여 나타난 특색은 무엇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本考는 어디까지나 영남퇴계학파의 鶴峯系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임을 거듭 밝혀 둔다.

II. 退溪의 文獻觀과 저술유형

文獻이란 선인들이 남긴 삶의 표현물이요, 과거적 기록이다. 새로운 지식을 쌓기 위해선 이미 선인들이 남긴 문헌을 통하지 않고는 지식의 획득은 어려운 것이다. 과거의 삶이 담긴 문헌의 이해란 학문하는 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朱子學文獻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자기경지를 개척한 퇴계는 어떠한 문헌관을 가졌고 그 결과 어떠한 유형의 저술을 편찬하였는가 살펴 보기로 한다.

1. 退溪의 文獻觀

퇴계의 기존문헌에 대한 태도는 ‘있는 그대로의 철저한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퇴계는 첫째, 한 자 한 획도 지나치지 않았고, ‘魚魯亥亥之訛’가 있더라도 반드시 분별하고야 말았다. 뿐만 아니라 비록 틀렸다 하더라도 그 글자를 함부로 지우거나 고치지 않고 紙頭에 “아무 글자는 마땅히 아무 글자로 해야 하지 않을까(某字疑當作某字)”라고 하였다.¹⁾

1) 《退溪言行錄》 讀書條. 先生讀書 正坐莊誦 字求其訓 句尋其義 雖一字一畫之微

문인 趙穆(1524~1606)이 《心經附註》을 교정할 때, 틀린 字畵을 당장 고치고 부당하게 刪節된 註釋을 보태어 고쳤더니, 즉시 퇴계는

先儒들이 만든 책을 어찌 제 소견에만 따라 지우고 보태기를 그처럼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자네는 저 金銀車²⁾의 조롱을 생각하지 못하는가?³⁾

라고 기존문헌에 대한 소홀함을 꾸짖었던 것이다.

둘째, 의미의 철저한 이해를 위해 자기의견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널리 衆論을 ‘反復參訂’하여 끝내는 바른 곳으로 귀결지은 뒤에야 그만 두었다⁴⁾는 것이다. 나의 의견이 옳으면 상대방을 의혹이 없도록 이해시키고, 나의 의견이 그르면 남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자기주장을 고쳤다⁵⁾ 한다.

셋째, 자기 주장이 그르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남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치고 또 고치고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自是而不聽’은 학자의 병이라고 朴雲에게 준 書翰에서 설과하였다.⁶⁾ 이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라도 문자로 남겨 문헌으로 정착될 때 그 문헌이 가지는 의미는 그 나름의 최선의 것이기에 참된 내용의 문헌을 남김에는 그와 같은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결과라야 한다는 뜻과도 같은 것이다.

不爲放過 魚魯豕亥之訛 必辨乃已 未嘗割改舊字 旁註紙頭 曰某字疑當作某字

- 2) 韓退之의 아들 稔은 무식하고 용렬한 사람으로 集賢校理로 있을 때, 史傳에 金根車라는 文字가 있었는데 稔도 그것이 잘못이라 하여 이에 根字를 銀字로 고친 故事에서 온 말임. 金根車는 天子가 親耕때 타는 수레임.
- 3) 李漢, 《李子粹語》 卷二, 張7, 窮格條. 趙上舍穆 嘗校讐 《心經附註》 字畵之訛字 直割正之 註脚之不當刪節者 卽添補之 先生責之曰 先儒成書 何可一任己見 去就之太快如此乎 獨不思金銀車訛乎.
- 4) 《退溪言行錄》 卷二, 類編 講辨條. 先生與學者 講論到疑處 不主己見 必博採衆論 雖章句鄙儒之言 亦且留意聽之 虛心理會 反復參訂 終歸於正而後已
- 5) <李德弘>. 與人論辨 有所不合 則猶恐己之所見 惑未盡 不主先入 不分人己 虛心紬繹 求之於義理 質之典訓 己言合理而有稽 則更與辨說 期於解彼之惑 觀或有未要卽舍己而從人 故人莫不悅服.
- 6) 《退溪先生文集》卷12, 與朴澤之條.

이와 같은 학문적 태도는 문헌에 내포된 내용의 철저한 이해란 문헌관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헌의 철저한 이해’는 註釋이란 작업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퇴계의 문헌재인식의 방법은 ‘參訂’과 ‘考論’의 두 가지 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람의 의견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름지기 서로 견주어 참작하고 고치고 난 뒤에야 그 취지의 귀결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곧 ‘考訂’이다. 그러나 그 증거로 삼는 문헌이 혹 구해 얻어보기 어려운 幽經僻書라도 반드시 詳考하고 논증이 있어야만 그 옳은 뜻(義類)을 알게 된다. 이것이 곧 ‘考論’인 것이다⁷⁾라고 하였다. 곧 이것이 퇴계의 문헌이해의 방법적 요체인 것이다.

이렇게 퇴계는 문헌의 철저한 인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퇴계학문에는 이 실증주의적 註釋학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퇴계의 학문적 태도는 뒷날 퇴계학과의 주석적 학풍을 형성시켰던 것이다.

2. 退溪의 著述類型

문헌의 철저한 인식방법은 ‘參訂’과 ‘考論’이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 같은 문헌관이 퇴계의 저술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퇴계학문의 제 내용은 雜著나 문인들의 往復書札에 들어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은 문집 속의 <書>나 <雜書>에 분류되어 실려 있기에 단독 저술으로서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서적의 외형을 갖춘 것으로 대개 《朱子書節要》《理學通錄》《啓蒙傳疑》《經書釋義》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서적의 편찬 방법을 분류해 보면 ① 節要的 著述 ② 輯錄的 著述 ③ 註釋的 著述으로 나누어 진다.

7) 李滉, 《啓蒙傳疑序》. 矧乎人之所見 不能無異同 仁者見之 謂之仁 知者見之 謂之知 必須參訂而後 得其歸趣 其所援證之言 或出於幽經僻書 必須考論而後 見其義類.

1) 節要的 著述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朱子書節要》이다. ‘節要’란 말의 뜻은 “節其繁而取其要”이다. 즉 繁雜한 것을 節刪하고 그 要旨로운 것만 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자서절요》은 주자문집의 書翰中 “尤關於學問而切於受用者”⁸⁾ 즉 학문하는데 더욱 유관하고 수용함에 절실한 것을 뽑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절요’란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篇帙이 많아 전체를 이해하기 힘들 때 취하는 編述의 한 방법인데 뒷날 많은 영향을 끼쳐 《退溪先生書節要》(10卷, 李象靖) 등과 같은 節要文獻이 많이 나왔다.

2) 輯錄的 著述

《理學通錄》이 여기에 속한다. 퇴계는 이 《이학통록》의 서문에서 “朱子が 倡道함에 그 제자들이 자못 많았지만 그들의 학문과 사적들이 거의 散逸되고 不傳하는 것이 많기에 여러 문헌에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所可據信者)을 衰輯해서 編錄(衰輯而編錄)⁹⁾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볼 때 아무 것이나 모아서 編錄한 것이 아니라 ‘所可據信者’ 즉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문헌을 衰輯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輯錄的 編著에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문헌을 모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註釋的 著述

주석적 저술에는 《啓蒙傳疑》과 《經書釋義》 등이 있다. 註釋이란 곧 “註其文而釋其義”의 준말인 것이다. 이의 要諦는 ‘引證事實’과 ‘疏通文義’인 것이다.

8) 李滉 《朱子書節要》序文.

9) 《退溪先生全書》續集 卷八, <理學通錄序>. 考亭 倡道 門弟子甚盛 然其學問事跡 多逸而不傳 今茲衰輯而編錄 所可據信者 自宋史有本傳外 惟有朱子實紀 及語類大全一統志等書……

‘註’는 經文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自註己意’하는 것으로서 곧 작성자 개인의 독자적 견해이며 이 견해가 객관성을 얻자면 자료의 확실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釋’은 ‘解’와 같은 뜻으로서 의혹을 풀고 分難을 밝혀내는 것이기에 논리성이 생명인 것이다.¹⁰⁾

앞서 언급했듯이 퇴계는 이 문헌의 재인식 작업의 요체는 ‘參訂’과 ‘考論’을 거쳐야만 된다고 간파하였다. 뜻이 다르거나 틀린 글자가 있을 때는 서로 견주어 참작하여 고쳐서 문헌의 진실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參訂’이라 하였고 인용된 문헌을 詳考하여 그 근거를 찾고 그 사실을 논증하여 객관적 파악이 곧 ‘考論’이라 하였다. ‘參訂’이 진상의 판별이라 한다면 ‘考論’이란 객관성의 획득인 것이다.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퇴계 저술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성격	用語出處	方法基準	著述
節要的	節其繁而取其要	取之切要者	《朱子書節要》
輯錄的	裒輯而編錄	所可據信者	《理學通錄》
註釋的	註其文而釋其義	必須參訂 必須考論	《經書釋義》

Ⅲ. 退溪의 文獻的 중심과제

퇴계의 문헌학적 중심과제는 첫째, 주자문헌을 중심한 중국의 성리학 문헌의 철저한 이해요, 둘째는 經書의 정확한 해독이었고, 셋째 문인들의 질의에 의한 禮書의 해석 등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0) 柳鐸一, 「韓國文獻註釋史序說草(Ⅰ)」, (『破田金戊祚博士回甲論叢』, 1988), p. 61.

1. 性理學文獻의 理解

퇴계는 1543년 중종 22년에야 校書館에서 간행한 《朱子大全》을 처음 보았고, 중종 25년에 병으로 인하여 관직을 그만두고故里 土溪로 돌아와 이 책에 정신을 모아 밤낮으로 읽고 사색하여 참된 지식을 얻었고, 그 말의 참뜻과 그 뜻의 심오함은 그 문인과 주고 받았던 서찰에 있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¹¹⁾

이로 말미암아 후대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친 《朱子書節要》(20권)를 편찬하게 되었다. 이같이 주자문헌을 중심으로 성리학의 이해과정에서 얻어진 것이 《啓蒙傳疑》(1권) 《理學通錄》(11권)《心經附註》(1권) 등 註釋的 著述이었다. 당시 주자문집에 대한 문인들의 質疑에 응답했던 퇴계의 주석과 견해가 문인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朱子書講錄》이요 白話體 難解句를 모은 《語錄解》인 것이다.

2. 經書의 정확한 解讀

儒學의 경전인 經書의 올바른 이해는 유학자의 기초요, 본령이라 할 수 있다.

儒教立國이란 國是로 이룩된 조선조에서 이 五經四書의 이해란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다.

세종 8년(1426)에 明으로부터 《五經四書大全》을 얻어와¹²⁾ 이를 慶尙·全羅·江原 3도에 分刊¹³⁾하였고 이들의 정확한 내용 이해를 위

11) 李滉 《朱子書節要序》. 然書此之行於東方絕無 而僅有故土之得見者 蓋寡 嘉靖癸卯(1543)中 我中宗大王 命書館印出頒行 臣滉 於是始知有是書而求得之 猶未知其爲何等書也 因病罷官 載歸溪上 得日閉門 靜居而讀之 自是漸覺其言之有味 其義之無窮 而於書札也 尤有所感焉.

12) 《世宗實錄》 卷34 張10. 上請 大全四書五經 性理大全 宋史等書籍 時遇之還帝特賜之.

13) <四書五經 性理大全跋>《東選》 卷103:19. 五經四書 若性理大全 皇明太宗文皇帝 命儒臣編輯之書也 帝以我殿下之好學 出於至誠 特賜是書 總一百二十九卷

한 懸吐 및 吐釋作業을 시작하였다.

세종 30년(1448) 3월에는 집현전 학사로 하여금 四書의 언해작업이 시작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완성은 보지 못한 것 같다. 世祖 成宗 燕山 등 4대를 歷事했던 眞一齋 柳崇祖(?~1512)에 의해 언해구결이 완성¹⁴⁾되었던 것이라고 하나 이에는 왕왕 誤處가 많았다고 한다. 이런 때에 퇴계는 문헌의 철저한 인식은 ‘參訂’과 ‘考論’을 통해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석학적 원리를 세우고 경서를 이해하였던 것이다.

經文의 集傳을 어떻게 吐를 달아 읽어야만 經의 本義와 註文의 참뜻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 무척 심혈을 쏟았던 것이다. 한 예를 들면 《大學》의 ‘格物’과 ‘物格’의 朱子註를 어떻게 吐를 달아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論及¹⁵⁾에 보듯이 細密精緻함이 비길 데가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태도로 이루어진 것이 《經書釋義》요, 《四書釋義》인 것이다. 이 두 책은 후일 經書 즉 七書理解의 기본서가 되었고 《東儒四書集評》(柳健休 著) 그리고 《四書纂註增補》(柳長源 著)등 七書註釋書를 낳게 했던 것이다.

3. 禮書에 대한 解讀

퇴계의 인간적 수양론을 ‘居敬窮理’로 말할 수 있겠지만 ‘敬’字 하나로 집약될 수 있다. ‘敬’에 대해선 程朱學에서 많이 논의되어 온 것인데 퇴계의 ‘敬’은 인간이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아를 확고부동하게 지키려는 태도이며 또한 참된 진리에 나아가는 바탕을 이루는 힘이라고¹⁶⁾ 하였다. 이러한 持敬에서 일어나는 법도가 예의라고 할 때 既存禮書에 대한

我殿下思廣其傳 命慶尙監司 崔府 全羅監司 沈道源 江原道監司 趙從先 錢梓于其道.

14) 柳希春, 《眉岩日記》 經書之有諺解 自柳崇祖始. 《國朝人物志》. 柳崇祖 精通經學 勤於誨人 奉命纂輯 七書諺解口訣.

15) 李滉, 《退溪集》 卷26, <答鄭子中書>

16) 李丙燾, 『韓國儒學史』(아세아문화사, 11987), p.214.

올바른 해석과 실천은 중요한 것이었다.

현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혼상제의 예절이니 이에 대한 문인들의 질의에 대하여 퇴계는 문헌의 올바른 해석으로부터 현실적 적용까지 의견을 말하였다. 이리하여 퇴계는 《喪禮問答》이라는 현실 實用禮書를 만들었고 이에 문인들도 이에 대한 영향으로 예서에 대한 저술을 많이 남겼다. 즉 趙穆의 《家禮疑義》, 李德弘의 《家禮註解》, 曹好益의 《家禮考證》, 金誠一의 《喪禮考證》, 柳成龍의 《喪葬質疑》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예서연구가 활발했다. 이는 뒷날 영남의 禮學派를 형성하게 하였던 것이다.

IV. 鶴峯系 退溪學派의 문헌학적 학풍의 전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계의 문헌이해는 ‘參訂’과 ‘考論’을 그 방법론적 요체로 삼았기에 考覈실증주의적 성향을 갖지 않을수 없게 되었고 주 관심대상은 성리학 문헌과 경서문헌 및 예서이었음을 말하였다. 여기서는 그와 같은 퇴계의 학문적 태도가 安東을 중심한 鶴峯系 퇴계 학파에서는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 특성은 무엇인가 살펴본다.

1. 鶴峯系派의 學問的 展開

鶴峯系 퇴계학파의 문헌학적 측면에서 본 학문적 전개는 19세기 말까지 다음 4기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다.

제1기 退溪見識의 文獻定着期,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퇴계와 그 문인들의 활약시대.

제2기 퇴계설의 宣揚과 퇴계 문헌의 編述期,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葛庵(李玄逸)과 그 문인들의 활약시대.

제3기 퇴계담구와 그 文獻註釋期, 18세기 중반~19세기 초반, 大山(李象靖)과 그 문인들의 활약시대.

제4기 연구분야의 확대변화기, 19세기 초반~19세기 말, 好古窩(柳徽文) 大棼(柳健休) 定齋(柳致明) 등의 활약시대.

1) 第1期 退溪見識의 文獻定着期

이 시기는 퇴계와 그 문인들의 활약하던 시기를 말한다.

퇴계의 학문적 활동은 1550년 이후, 즉 그가 나이 50이 넘어선 약 20년 동안과 그 문인들이 학문적 업적을 남기던 때, 즉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이 이 시기가 된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퇴계의 학문의 과제는 성리학 문헌의 철저한 이해와 유학경전의 올바른 주석, 그리고 생활실용적 예서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런 것은 이미 있어온 문헌의 依樣的 재인식이었기에 ‘引證事實’과 ‘文義疏通’의 주석학적 실증주의적 방법이 바탕을 이루었다. 그러하기에 문인들의 관심도 자연 위의 3가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질의가 중심이 되었다. 퇴계 棄世 후 곧 문집을 편집간행하여 그가 남긴 遺文이 정리집성되었을 뿐 아니라 퇴계가 自得한 地負海涵의 蘊奧한 지식은 그 문인들의 質疑問目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그 문인들의 저술 속에서 문자화되었다. 그것은 당대 문인들의 저술을 보아 알 수 있다.

趙 穆(1524~1606) ; 《心經稟質》《朱書節要質疑》《尚書義疑》
《家禮義疑》¹⁷⁾

李德弘(1541~1596) ; 《四書質疑》《周易質疑》《古文前集質疑》
《家禮註解》¹⁸⁾

曹好益(1545~1609) ; 《諸經質疑考異》.《易象說》《家禮考證》
《大學問答》《心經質疑考異》¹⁹⁾

金誠一(1538~1593) ; 《喪禮考證》²⁰⁾

鄭 述(1543~1620) ; 《五先生禮說分類》《心經發揮》《啓蒙圖書

17) 《月川先生文集》 卷4.

18) 《良齋先生文集》 續集 卷1~5.

19) 《芝山先生文集》 卷6~16.

20) 《鶴峯先生逸錄》 卷4.

節要》²¹⁾

柳成龍(1542~1607) ; 《喪葬質疑》《讀史蠡測》²²⁾

이외에 문인 질의에 대한 퇴계의 답변과 講論은 당대문인들의 손에 의해 편집된 바도 있으니 《朱子書講錄》과 《語錄解》, 그리고 《經書釋義》《四書釋義》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퇴계학에 있어서 이 제1기의 특징은 한 마디로 퇴계강론의 기록화 문헌화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퇴계강론의 單本的 편집 간행이요, 문인들의 質疑問目에 대한 퇴계 답변의 문헌화·구체화였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자연히 주석학적 학풍을 형성하게 하였던 것이다.

2) 第2期 退溪說의 宣揚과 退溪文獻의 編述期

이 시기는 주로 葛庵 李玄逸(1627~1704)과 그 문인들이 활약하던 시기이니 대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를 말한다. 葛庵 李玄逸은, 초야에 있으면서 학문을 애호했던 선비인 石溪 李時明(1590~1674)과 敬堂 張興孝(1564~1633)의 따님 장씨부인 사이에 태어났다. 장씨부인은 부덕을 갖춘 데다가 문예까지 통하였던 재덕을 겸비한 분이였다. 이에 葛庵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질이 남달랐을 뿐 아니라 經傳子史는 물론 律呂와 星曆에까지 능통한 학자였다. 眉叟 許穆의 천거로 持平으로 官界에 발을 디딘 이후 누차 자리를 옮겨 이조판서까지 이르렀고 정쟁에 휩쓸려 유배까지 당한 바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퇴계 主理學派의 嫡傳으로 栗谷이 牛溪와 논변한 것을 逐條批判하여 퇴계설을 변론한 <栗谷李氏四端七情書辨>은 유명한 논변이었다. 뿐만 아니라 兄 存齋 李徽逸(1619~1672)과 함께 만든 《洪範衍義》(20冊)는 經世著述로 자못 이름이 높다.

이같은 스승아래 배출된 문인들은 아들인 密庵 李栽(1657~1730)를 비롯 蒼雪 權斗經(1654~1725), 歷泉 柳慶輝(1652~1708), 霽山

21) 《寒岡先生文集》 卷9~10.

22) 《西厓先生文集》卷13.

金聖鐸(1684~1747), 顧齋 李縵(1659~1734), 鄭葵陽(1658~1737) 등 360여명²³⁾이나 되었다.

제2기는 葛庵을 비롯한 퇴계설의 옹호 선양과 퇴계문헌의 편집 간행 보급하는 발전적 시기라 할 수 있다.

靑壁 李守淵(1693~1750)을 중심으로 이뤄진 《退溪先生文集》의 《續集》 간행과 蒼雪 權斗經 (1654~1725) 등의 《退陶言行通錄》 《退溪先生言行錄》 《陶山及門諸子錄》 등이 편찬 간행되었고, 아울러 溪門諸子에 의해 이루어진 《朱子書講錄》이 轉寫 流布됨에 따라 訛謬가 있어서 다시 빠진 것은 더하고 그릇된 것은 고친 密庵 李裁의 《朱子書講錄刊補》의 改纂 등은 퇴계학 형성의 문헌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退溪主理說의 발전적 성장이었으며, 栗谷說에 대한 葛庵을 중심으로 퇴계설의 변론은 이러한 문헌집성을 낳게 했다고 할 수 있다.

3) 第3期 退溪探究와 그 文獻註釋期

이 시기는 대개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엽에 이르는 동안을 말하는데 이때의 주역은 大山 李象靖(1710~1781)과 그 문인 蘆厓 柳道源(1721~1791), 東岩 柳長源(1724~1796), 后山 李宗洙(1722~1797), 川沙 金宗德(1724~1797) 등이 대표될 수 있다.

이 시기의 중심인물인 大山은 제2기의 주역이었던 密庵 李裁의 外孫子로서 그 학통을 이은 성리학자이며 퇴계의 主理派의 嫡傳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활약한 인물의 연구업적은 실로 눈부실 정도였으니 그 대표적 인물의 저술을 보이면 대개 아래와 같다.

大山 李象靖(1710~1781) ; 《理氣彙編》²⁴⁾ 《制養錄》²⁵⁾ 《退溪書節要》²⁶⁾ 《敬齋箴集說》²⁷⁾ 《屏銘發揮》²⁸⁾ 《四禮常變通攷》 《朱

23) 柳伯坤 編, 《葛庵先生門人錄》(安東史蹟要覽, 1983), p.151 참고

24) 1冊 木. 跋: 旆蒙赤奮若...六世孫 性求.

25) 2卷 木. 序: 辛酉(1741)...李象靖

26) 10卷 木. 跋: 金宏. 鄭宗魯.

子語節》²⁹⁾ 《約中編》³⁰⁾ 등.

蘆厓 柳道源(1721~1791) ; 《退溪先生文集攷證》³¹⁾ 《東獻輯錄》
《四禮便考》 등.

東岩 柳長源(1724~1796) ; 《當變通攷》³²⁾ 《溪訓類編》 《四書纂
註增補》 《疑禮瞥見》 《學庸疑義》 《近思錄釋義辨》 등.

后山 李宗洙(1722~1797) ; 《朱子感興詩諸家集解》 《近思錄朱語
類集》 《退溪先生詩集割疑》 《退陶書節要割疑》 《九經蠡酌》 《家
禮輯遺》³³⁾ 등.

川沙 金宗德(1724~1797) ; 《聖學正路》³⁴⁾ 《聖學入門》³⁵⁾ 《草
蘆問答》³⁶⁾ 등.

이외 大山과 同榜及第한 三山 柳正源(1702~1761)은 《周易》을 주
해한 《易解參攷》 등을 저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시기는 성리학적 학문이 꽃피던 시기였고 퇴계학의 난숙기였다고 본다.
이 시기에 오면 성리학의 연구는 무엇보다 朱子를 알아야 하고 주자를
알자면 우선 퇴계를 이해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퇴계
의 이해는 곧 주자의 이해라는 사고의 전환기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大山은 퇴계의 《朱子書節要》의 예로 《退陶書節
要》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后山 李宗洙는 《退溪先生詩集割疑》《
退陶書節要割疑》같은 저술이 있는가 하면 蘆厓 柳道源에 의해 퇴계문
집 전체를 주석한 《退溪先生文集攷證》의 저술도 이때 이루어진 것이
다. 또한 密庵 李栽에 의해 《朱子書講錄刊補》가 이루어지고 그 후 大

27) 1卷 木. 序：庚午(1750)…李象靖.

28) 1卷 木. 跋：庚子(1900)…不肖孫 重明.

29) 4卷 木. 跋：丙午(1906)…金道和.

30) 1卷 木. 跋：柳致明.

31) 8卷 木. 序：李萬運, 跋：辛卯(1891)…金興洛.

32) 30卷 木. 序：癸卯(1783) 柳長源, 跋：庚寅(1830)…從曾孫 致明.

33) 西澗世稿(영인본) 第2집 后山集 참조.

34) 1卷 木. 序：壬寅(1782)…金宗德

35) 1卷 木. 刊記：孺子亭藏板 丙子刊役.

36) 6卷 木活. 跋：金道和.

산에 의해 이 책이 간행하게 된 것은 《朱子書節要》가 단순히 주자를 배우는 문헌이었기 때문도 있었겠지만 그 책이 퇴계에 의해 選取 주석한 것이기에 주자와 퇴계의 철학적 만남의 表徵物로 믿었던 까닭일 것이다.

한편 제2기에 있어서 禮學에 대한 관심은 이 시기에 와서 발전하여 많은 저술을 남기게 되었다. 즉 東岩의 《常變通攷》, 后山의 《家禮輯要》, 蘆厓의 《四禮便考》 등 大著들 이것이 바로 나왔던 시기다.

따라서 이 시기의 특징은 주자 곧 퇴계란 학문적 시각의 轉位와 퇴계 문헌 및 禮學文獻에 대한 註釋學的 학풍이 풍미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4) 第4期 研究視野의 擴大變化期

이 시기는 대개 19세기 초반에서 19세기 말에 이르는 시기이니 性理 연구와 예학연구는 물론 현실에 시야를 돌린 발전적 변화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역은 실학적 고증학적 저술을 남긴 好古窩 柳徽文(1773~1832)과 經書註釋書, 역사서, 심지어 종교비판서까지 저술한 大槓 柳健休(1768~1834), 그리고 관직의 길을 걸으면서도 많은 저술을 남기고 문인을 길러낸 定齋 柳致明(1777~1861), 그리고 그 문인 肯庵 李敦禹(1807~1884), 寒洲 李震相(1818~1865), 西山 金興洛(1827~1899) 등을 쉽게 들 수 있다.

이들이 저술한 문헌을 대략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好古窩 柳徽文(1773~1832) ; 《滄浪問答》(6卷) 《小學章句》(6卷) 《小學子問》(單卷) 《冠服考證》 《家禮考訂》 《啓蒙攷疑》 《濂洛風雅補遺》 《北遊錄物產謠俗》³⁷⁾

大槓 柳健休(1768~1834) ; 《東儒四書集評》(6卷印本) 《溪湖學的》(13卷7冊) 《異學集辨》(6卷6冊) 《國朝故事》(40卷20冊) <喪禮

37) 이 著述은 《全州柳氏水谷派 文獻叢刊》 제10집에 영인수록되었음.

備要疑義> <中庸章疑義>³⁸⁾

定齋 柳致明(1777~1861) ; 《朱節彙要》(4卷) 《家禮集解》 《大學童子問》 《讀書瑣語》³⁹⁾

肯庵 李敦禹(1807~1884) ; 《家學輯要內外篇》 《禮疑辨答》 《心經剖錄》 《朱子剖錄》 《知非錄》 《退溪先生心經性情上中下三圖說》⁴⁰⁾

西山 金興洛(1827~1899) ; 《論語剖疑》 《人學圖》 《程子格致說圖》 《朱子格致說圖》 《敬齋箴集》⁴¹⁾

이상의 저술을 살펴볼 때 제1기에서 3기까지의 저술과는 다른 성격의 것들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즉 성리학이나 禮學 일변도의 저술이 아니라 《國朝故事》와 같은 역사서, 《異學集辨》과 같은 종교비판서, 《滄浪問答》과 같은 친문서, 《濂洛風雅補遺》 같은 문학서 등 視野가 擴大되고 학문이 다양화되었으니 이는 퇴계학파의 새로운 변모를 보인 시기라 할 수 있다. 이같은 視野 擴大와 다양화는 주로 水谷 全州柳氏 一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이 특색이며, 이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같은 왕성한 학문적 업적은 뒤떨어졌고 망국의 설움 속에 다만 독립운동가가 많이 나왔다는 사실은 위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대충 退溪學 鶴峯系派의 학문적 흐름을 문헌학적 시각에서 4기로 나누어 그 학문적 발전의 흐름을 살펴 보았다. 즉 제1기인 퇴계와 그 문인들이 활약했던 이 시기는 사제간에 질의문답한 퇴계의 견식이나 논평이 단행본으로 기록편성되고 또한 제자의 문집 속에 문자화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제2기인 葛庵과 그 문인시대에 오면 主理說의 성장과 퇴계설의 宣揚辯護라는 학문적 성향이 퇴계문헌의 蒐集 整理를

38) 이 著述도 《全州柳氏水谷派 文獻叢刊》 제5, 6집에 수록되어 있음.

39) 《定齋先生文集》原集 續集 참조.

40) 《肯庵先生文集》20卷 11冊(石印本) 참조.

41) 《西山先生文集》24卷 12冊(木) 참조.

요구하게 되었으니 《退溪續集》 《退陶言行通錄》 《陶山及門諸子錄》 과 《朱子書講錄刊補》 등은 이로 말미암은 결과라 볼 수 있다. 제3기인 大山과 그 문인시대에 이르면 朱子 곧 퇴계라는 생각의 전환과 함께 퇴계연구가 심화되었으니 《朱子書節要》와 《朱子書講錄刊補》의 관계는 제3기에 와서 《退溪書節要》과 《退溪先生文集考證》의 관계로 換置되었던 것이다. 제4기에 접어 들어오면 朱子·退溪의 主理論을 근간으로 自己類의 학적 위치를 고수하면서도 연구시야가 확대되어 학문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性理書 禮學 등의 종래의 관심 영역을 탈피 역사, 천문, 지리, 종교, 문학 등 저술을 남겼던 것이니 이는 水谷 전주柳씨 一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퇴계이후 이 350년 동안 이같이 퇴계학이 각 시기마다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었지만 공통점은 모두 실증주의적 문헌학적 학풍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퇴계의 ‘문헌 그대로의 철저한 이해’란 문헌관에서 이뤄진 ‘參訂’과 ‘考論’은 註釋學的 학풍의 基調가 되었고 그것은 끝내 주석학적 학통을 낳게 했으며, 특히 뒤에 말할 安東 水谷(무실) 全州柳氏 一門에서 꽃이 피었던 것이다.

V. 全州柳氏 一門(水谷)의 考覈實證的 저술과 특징

윗장에서 문헌학적 견지에서 퇴계학문의 시대적 발전을 말했거니와 이의 두드러진 특징은 모두 실증주의적 註釋學的 학풍이었다고 지적하였다. 嶺南 退溪學 鶴峯系派의 이 학풍은 안동군 임동면 一區를 중심한 全州柳氏 一門에 유독 한 학통을 이루고 있음이 자못 흥미로운 일이다. 이제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할까 한다.

1. 全州柳氏 水谷派의 《文獻叢刊》

臨東面 水谷洞 속칭 ‘무실’에서 약 450년 동안 世居한 全州柳氏 一門은 서울로부터 落南한, 入鄉始祖 柳城(1533~1560)이 靑溪 金璣(1500~1580, 鶴峯 金誠一의 父)의 사위가 되어 榮州로부터 이곳에 移居 정착하여 이룬 문중이다. 본래 全州府의 土姓으로서 고려왕조에 上京從事하였고, 柳濕→克恕(府使, 河崙妹夫)→濱(府使)→義孫(世宗朝 集賢殿 學士, 禮曹參判)→季潼→軾→潤善→城으로 이루어지는 水谷派는 潤善이 榮州地方에 강력한 기반을 가졌던 朴承張(潘南朴氏, 司直)의 사위가 되어 서울에서 영주로 落南하였고 柳城이 靑溪公의 사위가 되어 현재의 水谷으로 移居하게 되었다. 城의 아들인 岐峯 柳復起(1555~1617)는 壬亂倡義로 공을 세웠고 6子3女를 두어 내외손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

以來에 全州柳氏 水谷派에서는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으니 문과에 급제한 분이 열 분이며, 逸薦이 다섯 분, 생원 진사가 서른세 분, 단행본 저술과 개인문집을 내신 분이 일흔일곱 분이나 된다. 그런데 이 같은 학자를 배출했던 全州柳氏 水谷派의 450年來의 전통부락이 현재 진행중인 안동 임하댐 건설에 의해 모두 수몰 地區가 되어 분산이주하게 되었다. 500년 世居地를 잃어버린 마당에 조상이 남긴 문헌이라도 정리해야 한다는 절실성 속에서 《全州柳氏水谷派文獻叢刊》⁴²⁾이란 이름으로 선조들이 남긴 모든 저술을 縮小影印頒布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껏 수백년 동안 문혀서 빛을 보지 못한 귀중한 저술이 이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이 《文獻叢刊》은 四六倍版 縮小影印으로 全23冊을 계획하여 현재 까지 11冊이 출간되었다. 이들에 대한 解題는 明谷 柳正基교수가 맡아 정성을 다하였고 간행은 柳升藩 議員이 맡아서 하고 있다. 저술의 내용은 明谷先生의 解題에 소상히 나와 있기로 여기서는 다만 《文獻叢刊》의 개략적인 내역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42) 編者 柳正基, 發行者 柳升藩, 發行普及所 安東水柳文獻刊行會 柳景福.

首篇: 汎柳上祖文獻, 水柳上祖文獻, 附錄

第1輯 解題(柳正基)

《檜軒逸稿》(2卷) 柳義孫(1398~1450, 世宗朝集賢殿學士)

《岐峯逸稿附八道地圖》(1卷) 柳復起(1555~1617)

《陶軒逸稿》(2卷) 柳友潛(1575~1635)

《百拙庵集》(4卷) 柳稷(1602~1662)

《治溪遺稿》(2卷) 柳學(1607~1698)

《乖崖文集》(4卷) 柳椿(1626~1701, 文科)

《空空齋先生實記》(1卷) 柳挺輝(1625~1695)

《萬嶺遺稿》(1卷) 柳益輝(1629~1698)

《蒙泉遺稿》《家禮集說》(6卷) 柳慶輝(1652~1708)

《磨泉逸稿》(1卷)《紫陽集解》(8卷) 柳大時(1657~1739)

《涵碧堂文集》(4卷) 柳敬時(1662~1737, 文科)

第2輯 解題(柳正基)

《慵窩文集》(4卷) 柳升鉉(1680~1746, 文科)

《陽坡文集》(4卷) 柳觀鉉(1692~1764)

《蘆厓文集》(10卷)《退溪先生文集考證》(8卷) 柳道源(1721~1791)

附《戊申倡義錄》(5卷)《表忠綸音考》(1卷)

第3輯 解題(柳正基)

《壺窩遺稿》(2卷) 柳顯時(1667~1752)

《緣筠軒遺稿》(1卷) 柳晉鉉(1687~1767)

《三山先生文集》(6卷 附錄 2卷)《易解參考》(17卷) 柳正源(1702~1761, 文科)

《壺溪遺稿》(1卷) 柳震休(1724~1757)

附《恭人聞韶金氏行錄》

第4~5輯解題(柳正基)

《東岩先生文集》(14卷)《四書纂註增補》(大學 論語 孟子 中庸 小
註攷疑)(31卷)《常變通攷》(30卷) 柳長源(1724~1796)

第6輯 解題(柳正基)

《醉軒遺稿》(1卷) 柳賁時(1680~1781)

- 《月會堂文集》(1卷) 柳元鉉(1674~1755)
 《松陰遺稿》(1卷) 柳和鉉(1712~1783)
 《江浦文集》(3卷) 柳弘源(1716~1781)
 《大埜文集》(10卷)《東儒四書集評》(6卷)《溪湖學的》(13卷)
 《異學集辨》(6卷) 柳健休(1768~1834)
 第7輯 解題(柳正基)
 《國朝故事》(40卷) 柳健休(1768~1834)
 第8輯 解題(柳正基)
 《軀書》(2卷) 柳元源(1714?)
 《壺谷集》(14卷) 柳範休(1744~1823)
 《壽靜齋文集》(12卷) 《近思錄集解增刪》(14卷) 《近思錄集解或問》
 (1卷) 柳鼎文(1782~1839)
 第9輯 解題(柳正基)
 《素隱集》(6卷) 柳炳文(1766~1826)
 《好古窩文集》(元集 18卷, 附錄 1卷) 《好古窩別集》(8卷) 柳徽文
 (1773~1832)
 第10輯 解題(柳正基)
 《好古窩外集(滄浪問答)》(6卷) 《好古窩續集》(6卷) 《小學章句》,
 (6卷) 《小學童子問》(1卷) 《濂洛風雅補遺》(7卷) 《易說管窺》(1
 卷) 柳徽文(1773~1832)
 《龜岬主集》(2卷) 柳約文(1769~1819)
 《守齋遺稿》(4卷) 柳致喬(1790~1862)
 第11輯 以下 未刊
 《寒坪文集》 柳晦文(1758~1818)
 《定齋文集》 柳致明(1777~1861, 文科)
 第12輯 解題(柳正基)
 定齋公編著書(家禮輯解 朱節彙要 大極圖解等)
 第13輯 解題(柳正基)
 《雅谷文集》
 第14輯 解題(柳正基)
 《同窩文集》(3卷) 《隱台文集》(1卷)《東獻通攷》(15卷) 《東林文
 集》(6卷)
 第15輯 解題(柳正基)

《近庵文集》(3卷) 《小隱文集》(3卷) 《可隱文集》(6卷) 《櫟庵文集》(4卷) 《萬山文集》(4卷)
第16輯 解題(柳正基)

《起軒文集》(2卷) 《伯窩文集》(1卷) 《石下文集》(2卷) 《石隱文集》(3卷) 《洗山文集》(2卷) 《修齋文集》(8卷) 《守齋文集》(3卷) 第17輯 解題(柳正基)

《臥松文集》(4卷) 《汎庵文集》(5卷) 《水西文集》(5卷) 《天山文集》(4卷) 《石山文集》(2卷)
第18輯 解題(柳正基)

《西坡文集》(13卷) 《恬庵文集》(8卷)
第19輯 解題(柳正基)

《古山文集》(2卷) 《琴下文集》(3卷) 《曙山文集》(1卷) 《廣林文集》 《洙谷文集》 《愧軒文集》 《洗心文集》 《平川世稿》
第20輯 解題(柳正基)

《東山文集》(2卷) 《海東詩史》(2卷) 《東史》(10卷) 《可林文集》(4卷) 《誠庵文集》(2卷)

第21輯 解題(柳正基)

《雅林文集》(4卷) 《醒岩文集》(3卷) 《慵坡文集》(1卷) 《主軒文集》(2卷) 《芙溪文集》(1卷) 《農圃文集》(2卷) 《聽山文集》(1卷) 《所潭文集》(1卷) 《一耕文集》(1卷) 《包堂文集》(3卷) 《時堂文集》(1卷)

第22輯 解題(柳正基)

《完山世牒》(10卷) 《完山世蹟》(10卷)

第23輯

《全州柳氏 水谷派 族譜》

2. 考覈實證의 著述

위에 든 목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80여명에 가까운 저술이 집대성되었고 이 가운데 ‘문집류’는 제외하고 단행본적 저술을 남긴 것이 많다. 이들 대개가 考覈실증적 저술이 대부분이니 그 내역을 앞서 살핀 바 퇴계학풍의 발전시기별로 견주어 보면 다음과 같다.

第1期	退溪見識의 文獻 定着期	이때는 아직 落南以後 安定기반을 갖지 못하였기에 별 활동이 없었음
第2期	退溪說의 宣揚과 退溪文獻編錄期	《家禮集說》(6卷) 寫本 柳慶輝(1662~1708) 《紫陽集解》(2冊) 寫本 柳大時(1657~1739)
第3期	退溪探究와 그 文獻註釋期	《易解參考》18卷 印本 柳正源(1702~1761) 《退溪先生文集攷證》8卷 印本 柳道源(1721~1791) 《常變通攷》30卷 印本 柳長源(1724~1796) 《四書纂註增補》16冊 寫本 柳長源(1724~1796)
第4期	研究視野의 擴大 變化期	《家禮攷訂》(文集收錄) 柳徽文(1773~1832) 《滄浪問答》6卷 寫本 " 《小學章句》6卷 印本 " 《小學童子問》1卷 印本 " 《易說管窺》1卷 寫本 " 《濂洛風雅補遺》7卷 寫本 " 《東儒四書集評》6卷 印本 柳健休(1768~1834) 《溪湖學的》13卷 寫本 "
第4期		《異學集辨》6卷 寫本 " 《國朝故事》40卷 寫本 " 《近思錄集解增刪》14卷 寫本 柳鼎文(1782~1839) 《東獻通攷》13冊 寫本 柳箕鎭(1792~1846) 《家禮輯解》 寫本 柳致明(1777~1861) 《朱節彙要》4卷 印本 " 《大學童子問》1冊 印本 "

위의 표를 가지고 살펴 볼 때 《家禮集說》《常變通攷》《家禮考訂》《家禮輯解》 등 禮書에 대한 저술이 있는가 하면, 《紫陽集解》《退溪先生文集攷證》《朱節彙要》 등 文集釋書가 나왔고, 《滄浪問答》 같은 천문서가 있는가 하면, 《易解參考》《易說管窺》 같은 易書 참고서가 편찬되었다. 經書註釋의 한국적 입장을 밝힌 《東儒四書集評》 같은 주체적 문헌이 있는가 하면, 《異學集辨》 같은 종교비평서적도 저술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역사적 인식이란 점에서 《國朝故事》같은 역사서가 나왔는가 하면, 《東獻通攷》과 같은 인물사전도 편찬되었고, 아동의 교육교과서로서의 《小學章句》《小學童子問》 같은 것도 편찬 간행되었다.

어떻든 이같은 다양한 저술은 주로, 考覈實證인 방법에 이뤄진 것이니 이는 퇴계의 ‘參訂’과 ‘考論’이란 문헌관이 확대 발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문화적 성격을 감안하면서 이제 문헌들의 개별연구가 요청되는 바이다.

3. 著者들의 血緣關係

약 200년 동안 일개문중에서 이같은 특색있는 다양한 저술을 만들게 된 것은 새로이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 학문적 방법과 편찬의 시각은 고증학적 학풍이었음은 앞에서 말했다. 그것은 퇴계의 실증주의적 문헌이해가 발전 확대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全州柳氏 一門의 이같은 저술을 편찬한 분들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 살펴보면 그 연맥이 자못 흥미롭다.

《家禮集說》을 낸 蒙泉 柳慶輝와 《紫陽集解》을 만든 磨泉 柳大時는 再從叔姪(7寸)間이며, 《易解參考》 등을 만든 三山(柳正源)은 磨泉의 종손자가 된다. 이 三山の 손자가 곧 역학 律呂 천문 지리 문학 등을 연구했던 실학자 好古窩 柳徽文인 것이다. 《退溪先生集攷證》을 낸 蘆厓 柳道源과 《常變通攷》을 낸 東岩 柳長源은 친형제간이며 앞서 말한 三山 柳正源과는 三從(8寸)間이 된다. 또 《朱節彙要》 등 책을 많이 저술한 定齋 柳致明은 東岩의 종증손이 되며 《異學集辨》《東儒四書集譯》 등 특색있는 저술을 많이 낸 大埜 柳健休는 三山 蘆厓 東岩과는 11寸의 姪行이 되고 《近思錄集增刪》을 지은 壽靜齋 柳鼎文은 蘆厓의 친손자가 된다. 이렇게 형제, 叔姪, 祖孫의 家學的 전통에서 200년 동안 면면히 이어온 결과 이같은 학문의 꽃을 피우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 한국 학술계에 보기 힘든 현상이라 하겠다. 內陸의 奧地에 앉아서 학문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이같은 大著들을 내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이제 그 많고 엄청난 저술이 《文獻叢刊》이란 이름으로 영인하게 된 소이도 따지고 보면 이같은 학문적 전통의 소산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같은 학문적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던 이 全州柳氏의

본거 그 학문적 메카인 水谷 大坪 朴谷은 모두 임하담 깊은 물길 속에 말없이 잠기고 말았다.

VI. 결 언

이상에서 영남퇴계학과중 문헌학적 저술이 두드러진 鶴峯系를 중심으로 그 학풍의 형성과 전승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학적 시각에서 살펴 보았다. 먼저 퇴계의 문헌관과 그 저술의 유형 및 문헌적 중심과제를 살펴보고, 다음 퇴계의 이러한 학문적 태도에 대한 鶴峯系에서의 전개양상과 특기현상을 살피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1) 퇴계의 문헌관은 ‘있는 그대로의 철저한 인식’이었고 이 바탕에서 이뤄진 저술은 節要的인 것, 輯錄的인 것, 註釋的인 것의 3유형이 있었다.

(2) 문헌학적 시각에서 본 퇴계의 중심과제는 첫째, 중국의 성리학문헌의 이해, 특히 주자문헌의 철저한 자기화였고, 둘째, 경서문헌의 정확한 주석 셋째, 유학자의 실용학으로서 예학에 대한 현실적 정립이었다.

(3) 이러한 퇴계의 학문적 성향 속에서 전개된 鶴峯系의 학문적 발전은 퇴계이후 19세기 말까지 4기로 나누어 보았다.

제1기는 퇴계 당시의 그 문인이 활약하던 시기로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인데 이때의 특성은 退溪見識의 문헌화였다고 볼 수 있다.

제2기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걸치는 동안인데 葛庵 李玄逸과 그 문인들의 활동시기였고 이때는 퇴계학설의 선양과 퇴계관계문헌의 裒輯 정리가 그 주류였다.

제3기에 와서는 주자 곧 퇴계라는 사고의 전환기였고 이에 퇴계탐구가 심화되어 그 문헌의 주석활동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 시기의 주역은 大山 李象靖과 그 문인 東岩 柳長源, 后山 李宗洙, 川沙 金宗德 등인데

이때는 단독 저술이 많이 나왔다.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가 그들의 활약기였다.

제4기는 19세기 초반에서 19세기 말까지 약 80년 동안이다. 제1기, 2기, 3기에 이르는 퇴계학의 발전을 계속 이어오면서도 특별히 새로운 변화를 보인 것은 연구분야의 확대변화기였다. 이 시기의 주역은 好古窩 柳徽文, 大埜 柳健休, 定齋 柳致明 등인데 천문·지리·종교·역사 등의 불후의 大著들이 쏟아져 나왔다.

(4) 이와 같은 鶴峯系 학문의 발전 속에 특기할 것은 안동 水谷(속칭 무실)에 世襲盤居했던 全州柳氏 水谷派의 家統的 학풍에서 考覈實證主義의 다양한 문헌학적 저술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이다. 주역주석서인 《易解參考》(柳正源), 퇴계문집 주석서인 《退溪先生文集攷證》, 주자문집 주석서인 《紫陽集解》(柳大時) 등과 《家禮集說》(柳慶輝), 《常變通攷》(柳長源) 등 禮書編述, 그리고 《四書纂註增補》(柳長源), 《東儒四書輯評》(柳健休) 등 경서주석서와 《異學集辨》(柳健休) 같은 종교비판서, 《國朝故事》과 같은 역사서는 물론 《滄浪問答》(柳徽文) 같은 천문서, 《東獻通攷》(柳箕鎭) 같은 인물평전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저술이 형제, 叔姪, 祖孫, 친척관계의 가풍적 계승에서 이뤄진 저술이라는 점이 특색이며 이런 현상은 퇴계학문의 발전적 확대, 개화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本稿는 제기된 어떤 문제에 대한 귀납적 원인규명이 아니라 연역적 방법에 의한 사실의 설명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보고서적 성격을 띠고 있음도 시인한다. 하지만 퇴계학의 종합적 이해에 있어서는 그 생성된 문헌의 시대적 성향과 개별적 編述에 따른 이해도 탐색의 일과제가 될 것이다. 영남퇴계학과에 있어서 유독 鶴峯系에 문헌주석적 저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에 그같은 학풍이 어떻게 형성전개되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었다.

끝으로 이같은 저술을 남긴 선조들의 유적이 임하담 건설로 영원히 물 속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영원한 失鄉의 아픔이 이제금 뼈저리게 사무친다.